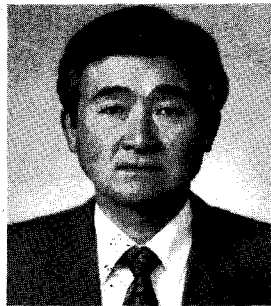


위기의 낙농, 그 삶의 해법

- 원유대 인상을 촉구하며 -



조 홍 원
본회 부회장, 원일목장

문제의 발생

오늘날 우리 낙농업은 또 다시 중대한 위기와 시련에 처해있다. 지난해 12월 느닷없이 사료값이 7% 인상되더니 이제 7월 1일을 전후하여 또 한차례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생산자 단체요, 축산인의 대변단체라는 축협 중앙회조차 이번 사료값 인상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니 사료값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요 시기의 완급이 있을 뿐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사람이 많다. 불과 반년 사이에 두차례 사료값 인상이라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두차례 인상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15%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비관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 전국 낙농가들은 원유대의 인상 요구가 불붙고 있다.

우유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대의 기

습적 대폭적 인상으로 우리네 농심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으나 국제 곡물가의 상승과 유통비용의 증가로 피할 수 없는 형편이라니 미국이 흉년들면 우리가 배를 굶는 현실에서 어찌 항변할 곳도 만만치 않고 가슴앓이만 하는 수 밖에 없다. 단지 원유대의 인상으로 생산비의 일부나마 보상 받아야 할텐데 과거 경험으로 보아 유대인상이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 내 주변에서 심심찮게 폐업목장이 생겨나고 있다.

생산의욕이 떨어지면 우유가 모자라고 우유가 모자라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국민의 입맛이 수입유제품에 순치되고 그 결과는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하여 결국은 국내 낙농기반은 송두리채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한국 낙농의 위기로 시련기인 것이다. 결국은 유대를 인상하여 생산의욕을 북돋아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유대의 성격

낙농가에게 유대는 어떤 것인가? 우리 낙농가에게 유대는 유일한 수입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젖소 기르는 일, 더러운 쇠똥속에 묻혀 연중무휴 중노동으로 생산하는 우유에 대한 보수다. 국민건강과 2세의 성장발육에 가장 필수적인 우유에 대한 대가이다. 우리 낙농가는 유대로 사료구입, 농기계구입 등등 젖소 사육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 낙농가도 주말이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청첩장에 부조를 해야하며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한다. 가족들 의료비,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위한 가전제품등을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생력을 위한 투자도 해야 하며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우유를 생산 하기 위한 재투자도 하여야 한다.

유대는 최소한 이러한 낙농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소위 3D라는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작업으로 생산하는 우유는 이제 기호품이나 사치식품이 아니고 국민의 주식으로 자리했다. 이런 국민의 주식인 우유를 생산하는 일은 조각품을 만들고 과일주 담아 마시는 예술활동이나 취미생활이 아닌 경제행위다. 경제행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유대구조하에서 이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제 우리도 우유생산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혹서로 많은 젖소를 죽이고 유량이 감소하여 큰 피해를 본 낙농가들의 피해는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어 작년 8~10월에 임신이 되지않아 금년 4월 중순이후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금 우유가 모자라고 있다. 우유가 모자라 아우성이면 시장에서 우유값이 당연히 올라야 하련만 유대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유대가 인상되어 우유증산의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유대 결정의 모순

우리나라의 원유값은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정부고시가의 변동이 없는 한 유대는 요지부동이다. 우유가 모자라면 유업체가 비공식적 비정상적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집유쟁탈을 하게하

우유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대의 기습적인 대폭인상으로 생산의욕이 떨어지면 우유가 모자라고 우유가 모자라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국민의 입맛이 수입유제품에 순지되고 그 결과는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하여 결국은 국내 낙농기반은 송두리채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한국낙농의 위기요 시련기인 것이다. 결국은 유대를 인상하여 생산의욕을 북돋아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는 소위 집유선 동결 조치까지 있어 가히 요지경 속이요, 낙농가는 움썩달짝 못하게 묶여있다.

우유가 처리하지 않은 채로는 상온에서 수시간 내에 변패되는 보관성의 문제와 성분의 90% 가까이가 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가 고시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일면 열악한 낙농을 보호, 진흥하려는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실제로는 추곡 수매가 결정으로 저곡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미국농가를 나락으로 빠뜨린 것과 같이 유대결정을 경제원리나 시장원리를 배제한 채 물가의 희생양으로 삼아온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

유대 결정과정을 보면, 견디다 견디다 못한 낙농가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으면 마지못해 축협중앙회의 생산비 조사서를 근거로 인상안을 마련하여 재정원과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깎여진 채 결정되었다. 결정된 유대를 보면 항상 생산비도 못되는 수준이었다. 유대 결정에 낙농가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낙농가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몇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축협중앙회의 생산비 조사가 타당한가?

축협중앙회가 과연 낙농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이 질문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생산비 조사에서 항목,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생산비 조사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난다.

마치 물가에 미치는 품목들의 가중치가 잘못되어 배추값이 조금 오르면 배추값이 물가를 폭등케 하는

주변취급을 받는 것 처럼 제대로 된 생산비 조사를 하려면 생산비 구성 Form을 바꾸어야 한다.

또 통계의 마력이기도 하지만 표본선정 여하에 따라 상이한 통계가 나오듯이 낙농가가 기장을 잘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우수한 농가만 조사대상으로 삼는다면 생산비 조사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것이다.

셋째. 지난 수 차례의 유대 결정결과를 보면 생산비 =유대로 결정되었다.

세상에 이윤없는 경제행위가 어디 있는가? 생산비만 보상하는 유대로 어떻게 재생산에 투자를 하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자녀교육 문제나 가족들의 의료비는 어떻게 충당하란 말인가?

넷째. 유대결정에 적용되는 생산비 조사는 지난해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물가는 적전 많건 매년 오른다. 그리고 유대는 결정되면 다음 결정될 때 까지 적용되는 미래 지향적 결정이다. 미래에 적용될 가격을 일정한 보장을 하지 않은 과거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유대가 물가의 희생양이 되어 유대 정부고시 가격이 낙농의 보호보다는 저물가를 지향하는 물가 당국의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국제경쟁력이라는 미술

유제품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대의 인상이라는 카드는 확실히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혹자는 유대를 인상하면 유제품 수입이 폭등할 것이고 그 결과 우유가 남아 돌게되면 유업체들은 선별 집유를 하게되고 영세 낙농가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되니 유대인상은 곤란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또 유대가 인상되면 시유가격이 올라가고 우유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서 큰 문제가 생기니 유대인상을 해서는 안된다고도 한다. 그런 논리로 사료대의 폭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낙농가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가뜩이나 고된 직업이기에 기피하려는 낙농기피 현상에 불을 지퍼 대기성 폐업농가를 포함한 수 많은 낙농가를 폐업의 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시장에서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유제품 수입의 홍수는 견잡을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앉아서 우리의 낙농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린 채 우리의 안방을 외국 유제품에 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마치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수혈을 받아서는 건강한 사람과 경쟁할 수 없으니 건강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려면 수혈병을 치워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수혈을 시키며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건강한 사람과 같이 경쟁하게 만들어야 옳지 않겠는가. 거의 모든 사료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사료곡물가의 인상에 따른 가격의 여파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부를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수단으로 소비자 물가만 생각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자칫 국내 낙농기반이 송두리채 무너진다면 양질의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번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다. 사료대 인상시기에 때 맞추어 응분의 유대를 인상하여 줌으로써 낙농가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을 부여하고 한시바빠 경영개선, 시설개선을 이룩하여 국제 유가와 싸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이다. 아무리 급해도 중학생을 대학생과 싸우라고 링으로 내몰수는 없지 않은가. 중학생이 대학생만한 체력을 갖출때 까지 기다리며 체력을 기르는 선행과 훈련을 부지런히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건축자재 값이 오르면 건축비가 오르고 집 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아무리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생각해 집값을 안정시키려해도 날림공사를 하여 불안한 집을 짓기 전에는 집값을 안올릴 방법이 없다. 사료값이 올들어 15% 정도 인상된다면 하루 빨리 15%이상 유대를 인상해야 한다. 15%이상 유대인상 요구에는 '93년 유대인상시 인상요인 미반영분과 낙농가들이 시설개선, 경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생산비+약간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낙농이 사는 길

건축자재 값이 오르면 건축비가 오르고 집 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아무리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생각해 집값을 안정시키려해도 날림공사를 하여 불안한 집을 짓기 전에는 집값을 안올릴 방법이 없다.

사료값이 올들어 15% 정도 인상된다면 하루 빨리 15%이상 유대를 인상해야 한다. 15%이상 유대인상 요구에는 '93년 유대인상시 인상요인 미반영분과 낙농가들이 시설개선, 경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생산비+약간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우리의 우유자급도는 8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적어도 마시는 우유(시유) 만큼은 기필코 자급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생산비만 보상하는 유가정책으로는 안된다. 해마다 줄어드는 우유자급율과 식생활개선에 따른 꾸준한 우유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유대에 재투자를 위

해 필요한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이런 정도의 유대인상은 몇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소비자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않고 가능하리라 본다.

예컨데 막대한 돈이 드는 회사간 우유광고 경쟁을 지양한다든지 매장쟁탈을 위해 냉장고 사주고 거액의 입점비를 지불하는 경쟁을 그만두는 것 등도 깊이 생각할 문제다.

실제로 유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유대외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인상부담을 덜주고 유대를 인상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거듭 촉구하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낙농이 사는길은 사료인상에 때 맞춰 15%이상 유대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제경쟁시대에 가격경쟁, 품질경쟁에 대비하여 투자하고 분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이그라스 짚(RYE GRASS STROW) 공급

협회에서는 금년 6월부터 화분과 라이그라스 짚(RYE GRASS STROW)을 공급합니다.



■ 라이그라스 짚의 특징

- 가) 볏짚에 비하여 줄기가 부드럽고 연하며, 품질이 좋아 기호성이 우수합니다.
- 나) 유효섬유질이 뛰어나며 두과 목초의 단점을 보완해 줌으로 고능력우 사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다) 베일(BALE) 형태로 공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협회 알선사업부 (02-588-7055)로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